

한국경제지리학 접근방법의 체계화

한주성*

요약 : 본 연구는 경제지리학의 인식론적 접근방법과 지역을 기반으로 연구를 전개하는 지리학의 존재론에서 그 접근방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경제지리학의 체계화를 시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56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경제지리학 연구는 그 동안 학문의 독자성이나 연구 접근방법의 체계화에 대한 논의가 없이 선진국 학문의 발달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접근방법의 체계화를 위한 인식론과 존재론의 축을 기준으로 신고전경제파, 지리적 정치경제파, 지역구조파, 지방자치단체 경제파로 나누어 체계화를 구축했다. 이러한 경제지리학의 체계화에 경제활동의 주요 이론인 세계시스템론이나 조절이론, 네트워크론, 제도주의 등도 내적으로 포섭해 가면서 지적변화를 추구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인식론, 존재론, 체계화, 신고전경제파, 지리적 정치경제파, 지역구조파, 지방자치단체 경제파

1. 서론

우리나라의 경제지리학 연구는 1956년 李廷冕의 석사 학위논문 발표이후 학문의 독자성과 접근방법 체계의 논의도 없이 2015년 60년을 맞이하게 된다. 그 논의의 전제로서 독립된 학문에는 고유의 연구대상과 연구의 접근방법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지리학은 구미와 일본 등 선진국 연구방법의 흐름 속에 블랙홀과 같이 빨려 들어가며 이들에 대한 성찰도 없이 1970년대 후기까지에는 일본의 영향을 그 이후에는 구미 등 선진국의 영향을 크게 받아 한국적인 경제지리학의 정체성을 확립하지도 못한 채 발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는 글로벌 경제 변화 속에

서 한국경제지리학의 연구대상을 규정짓는데 논자 간에 견해가 통일되어 있지 않는데 비교적 많은 논자가 주장하는 것은 지역의 경제에 관한 여러 가지 현상을 경제지리학의 독자의 대상으로 보는 견해이다. 그러나 지역의 범위가 국가이고 국민경제인 경우에는 연구대상이 경제학과 거의 같으므로 경제지리학의 독자성은 결여되게 된다. 그렇다면 경제지리학의 연구대상이 세계경제 안의 블록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국민경제 내부의 지역적 범위를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블록을 의미할 경우에는 경제지리학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데는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세계 경제론과 각 국가 경제론의 협력 없이는 경제지리학이 독자적인 지위를 구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지리학은 국민경제 내부의 임의지역에서 나타나는 경제현상을 범칙 정립

* 충북대학교 명예교수

적, 현상 기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矢田, 1982).

지금까지의 한국 경제지리학의 접근방법은 논리실증주의에 바탕을 둔 신고전경제파가 주류를 이루어 오다가 1980년대 후반부터 지식사회의 변화로 정치경제학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韓柱成, 2011, p.253). 그러나 각 산업의 배치에 의한 등질 지역으로서의 산업지역과 각종 경제활동의 지역적 순환에 의한 기능지역으로서의 경제권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정반합의 경제지역을 경제지리학의 최종 연구목표로 하는 지역구조론(regional structure of the national economy)의 접근방법이나 지역사회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경제론의 접근방법에 의한 연구 또한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경제지리학의 인식론적 접근방법과 지역을 기반으로 연구를 전개하는 지리학의 존재론에서 그 접근방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경제지리학의 체계화를 시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제시된 체계를 근거로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물들이 이 체계 속에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파악할 수 있고, 또 경제지리학 분야 연구물에 대한 학문적 정체성 여부의 논쟁을 마무리 짓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2. 인식론적·존재론적 경제지리학의 연구

경제지리학의 인식론¹⁾적 연구방법론으로는 1960년대 이전의 경험주의 등장 이후 논리실증주의, 행태(동)주의, 구조주의 등이 발달하여 그 축을 이루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논리실증주의의 분석은 객관성, 관찰자와 대상의 독립성을 전제로 하며 입지분석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또 행태주

의는 경험에 의한 체계적 관찰과 실증적 근거의 객관성을 인간화·사회화를 중시하는 것으로 환경인지, 환경선호연구가 그 예이다. 그리고 구조주의는 관찰자의 위치성,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구조를 중시하는 등으로 言說의 분석이 그 예이다.

한편 경제지리학에서의 존재론²⁾은 실제로서 발현한 '지역'을 중시하는 것과 주체에 인식된 '지역'을 중시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의 예로서 시장지역이 있고, 후자의 예로는 지역사회를 들 수 있다(山本, 2012, p.228). 이와 같은 인식론과 존재론의 축을 기준으로 그림 1과 같이 논리실증주의에 가까운 신고전경제파와 구조주의에 가까운 지리적 정치경제파³⁾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서 발현한 '지역'과 논리실증주의에 가까운 지역구조파, 주체에 인식된 '지역'과 행태주의에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경제파가 대칭되는 관계를 인식론적 축의 지역현상 이해라는 측면과 존재론 축의 지역개념으로 분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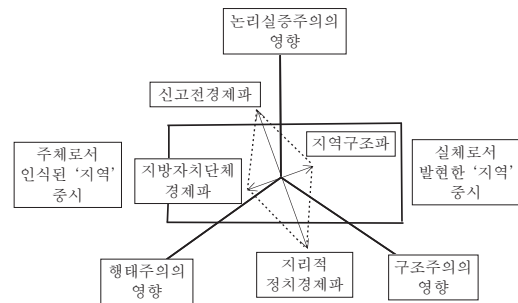


그림 1. 한국경제지리학의 접근방법 체계화

* 굵은 방사선은 인식론적 축, 평면은 존재론적 축, 실선 화살표는 주요한 대립관계, 점선은 일정한 친화성을 나타냄.

* 존재론적 축의 평면도형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리학에서 지역을 강조하기 위함임.

출처: 山本, 2012, p.229를 수정·재작성하였음.

3. 한국경제지리학 접근방법의 체계화

1) 신고전경제파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사이에 영국의 자본주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신고전경제파는 일반성과 보편성을 중시하며 집적의 이익, S. Kuznets와 J. G. Williamson의 역U자 사이클⁴⁾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신고전경제파는 우리나라 경제지리학의 입지분석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경제지리학분야 석사 학위논문을 처음 발표한 李廷冕의 연구(1956)를 위시하여 농·공·상업의 입지분석과 최근의 신경제공간과의 신산업집적에 관한 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고전경제파는 개인행동의 집합으로 구성된 세계(미시적 기초)를 상정한다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할 수 있으며, 또 인식론적으로도 개인의 선택행동에서 수리모형을 만들어 전체를 설명하는 것을 왕도로 하고 있어 행태주의의 영향도 받았다.

2) 지리적 정치경제파

정치경제학이란 정치활동과 경제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일련의 문제를 연구하는 경제학 또는 경제학적 방법론을 인간이 정치사회적 의사결정분석에 적용시키는 학문분야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리적 정치경제(geographical political economy)파의 엄밀한 정의는 없지만 최근에 Seppard(2011a, b)는 1970년대 후반부터 D. Massey, D. Harvey 등으로 대표되는 비판지리학(radical geography)의 흐름에 다소 영향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지리적 정치경제파는 특수성과 고유성을 중시하며 개발주의, 역U자의 역사적 특수성 등의 특징을 가지며 좁은 의미의 마르크스주의, 경제지리학에 흡수되지는 않고 유물론적·경

제주의적 접근방법에 비판적인 潮流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Gibson-Graham, 2006).

지리적 정치경제학은 지금의 구미 여러 나라 내에서 고유한 대상·방법에 관한 합의를 얻어내려는 힘이 약하다고 느껴져 나쁘게 말하면 잡다하고, 좋게 말하면 다양성이 풍부하게 열려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Peck와 Olds(2007)는 경제지리학 전체를 결합하려는 구심점인 공통과제와 인식이 부족한 도넛에 비유하면서도 전혀 공통항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리적 정치경제파는 신고전경제파와 대치되면서 존재론과 인식론에서 일정한 특징을 들어내고 있다. 존재론에서는 지리적 정치경제파가 주체와 구조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에 의해 구성된 세계관을 갖고 있다.

지리적 정치경제파는 비경제요소를 포함한 구조와 그것에 착근한 위치성(positionality)을 갖는 주체의 역동적인 상호관계의 분석을 중시한다(山本, 2012, p.228). 덧붙여 말하면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이 공간차원을 경시한 보편적인 법칙정립(예를 들면, 계급대립)을 지향하는 것에 대해 지리적 정치경제파는 경우에 따라 수리적인 방법을 사용해 왔다는 것은 물질적인 넓이를 갖는 공간경제에 있어서 그러한 일반법칙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Rigby and Webber, 1996; Shepard and Barnes, 1990). 그 의미에는 지리적 정치경제파의 지리적이라는 수식어는 결코 단지 기존의 마르크스 경제학의 지역판에 머물지 않고 그 지평을 비판적(radical)으로 수정한 관점을 내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지리적 정치경제파는 예를 들면 주체행위의 결과로서 출현한 지역 또는 분업체계에 주목한다는 의미에서 존재론적 접근성이 존재한다. 또 지리적 정치경제파는 주류경제학과의 인식론적 '거리'에 비하면 지방자치단체 경제론과 지역구조론과는 모두 일정한 친화성을 갖고 있고, 또 이들 간의 차이는 그렇게 본질적인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물론 이러한 다른 ‘거리감’의 존재는 구미와 일본에 있어서 경제지리학을 둘러싼 제도적 역사(또는 정치학)와 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山本, 2012, p.229). 우리나라에서의 지리적 정치경제파의 연구는 경제지리학 분야에서 그다지 활발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지역구조파

경제지리학에 고유의 연구대상이 필요하다면 존재론적 판단기준을 바탕으로 합의할 수 있는 것이 지역구조라 할 수 있다. 그것을 가장 단적으로 나타낸 결과가 사람, 상품 및 화물, 화폐, 정보 등의 순환이 만들어낸 경제지역(시장지역)이라는 실체를 독자적인 연구대상으로 경제지리학계에 영향을 미친 것이 지역구조론이라 할 수 있다(山本, 2012, p.228).

한편 경제지리학의 연구과제는 현재 경제학이 이론 편중의 경향에서 현실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과 경제현상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경제의 여러 부문과 농·공업, 유통산업, 서비스업, 정보산업 등의 기능입지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재화와 서비스, 소득과 자금 및 정보의 지역적 순환을 분석하고, 이들에 의해 형성된 여러 경제의 지역구조를 해명하는 것이다. 또 이와 관련된 지역문제의 발생 메커니즘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생산 활동의 입지·배치의 지역적 전개에 관한 일반적 법칙성의 해명과 경제권(시장·금융·관리권) 등 기능적 경제현상에 관한 윤리의 문제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경제발전의 특수성과 국토기반이 다른 각 국가 경제의 지역구조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를 규명해야 한다. 또 산업지역과 경제권의 설정과 그들의 중층적인 구성에 대한 해명을 하고, 각 국가 경제의 지역구조를 비교해야 할 것이다(矢田, 1982).

지역구조론은 상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내의 경제구조보다는 공간적 분업체계의 이해를 중시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차이는 결정적으로 크다고 할 수 없다(山本, 2012, p.228). 또 최근의 존재론적 관점에서 ‘지역’이 시장지역과 지역사회가 친화와 반목을 되풀이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존재해서 통일적으로 파악하는 관점도 제안되고 있다(加藤, 2005). 지역구조론에서 보면 인식론적 견지에서는 논리실증주의적 접근방법을 지향하는 신고전 경제파와는 일정한 친화성을 가지며 입지론의 적극적인 포섭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발전으로 글로벌 경제가 등장함으로써 지역구조론은 공간 체계론(矢田·松原, 2000, pp.279-312)⁵⁾으로 재구축되며, 나아가 기업과 정보경제는 공간 네트워크(韓柱成, 2011)로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구조를 위시하여 공간체계, 공간 네트워크의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은 진전을 가져왔다고 볼 수 없다.

4) 지방자치단체 경제파

존재론의 관점에서 시장지역과 대치되는 지역사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경제파(宮本, 1991, pp. 157-161)의 연구대상이다. 지역사회란 인간관계에 의해, 지리적·행정적 분할에 의해 나누어진 일정 지역의 사회로, 이는 인위적인 지방자치단체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지역경제활동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야기되는 경제현상을 규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경제지리학이 국민경제 내부의 임의지역에서 나타나는 경제현상을 법칙 정립적, 현상 기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임의지역의 대상은 국가의 하부구조에 해당하는 특정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경제현상을 법칙 정립적, 현상 기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방자치단체 경제파는 지방자치단체 내의 공간적 분업체계보다는 경제구조를 보다 더 중시하는데, 이와 같은

연구는 우리나라 경제지리학계에서는 거의 전무한 형편이라 할 수 있다.

4. 결론

1956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경제지리학 연구는 그 동안 학문의 독자성이나 연구 접근방법의 체계화에 대한 논의가 없이 선진국 학문의 발달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접근방법의 체계화를 위한 인식론과 존재론의 축을 기준으로 신고전경제파, 지리적 정치경제파, 지역구조파, 지방자치단체 경제파로 나누어 체계화의 구축을 시도했다. 이러한 경제지리학의 체계화에 경제활동의 주요 이론인 세계시스템론이나 조절이론, 네트워크론, 제도주의 등도 내적으로 포섭해 가면서 지적(知的) 변화를 추구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주

- 1) 지식의 본질, 기원, 근거, 한계 등에 대한 철학적인 연구 또는 이론을 말하는 것으로, 인식론(Erkenntnistheorie, epistemology)은 근대의 소산이며 K. Reinhold의 『인간의 표상능력(表象能力) 신론(新論)의 시도』(1789년)에서 처음 사용했다. 영어의 epistemology는 그리스어의 epistēmē(지식)+logos(논리·방법론)에서 유래되었지만, 이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J.F. Ferrier로 저서 『형이상학원론』(1754년)에서 이다.
- 2) 존재자 일반을 다루는 철학의 한 분야로, 라틴어로는 ontologia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리스어의 on(존재자)과 logos(논)로 이루어진 합성어로 데카르트파의 철학자 J. Clauberg와 Wolf학과 등이 사용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여기서 말하는 '존재'란 '있다', '존재한다'라고 일컬어지는 사물 전체를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론은 존재의 특수한 형태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것 그 자체'의 근본적 규정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 3) 지리적 정치경제학을 신고전경제파에 대응하도록 지리적 정치경제파라고 하였음.
- 4) 1955년에 발표한 이론으로 후진국이 성장하면서 초기에는 소득분배가 악화되나 이후 점차 분배가 개선되면서 불평등도와 경제발전은 역U자형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 5) 경제의 공간체계는 세계경제의 공간체계, 국민경제의 공간체계, 지역경제의 공간체계, 기업경제의 공간체계, 정부경제의 공간체계로 구성된다.

참고문헌

- 李廷冕, 1956, “서울市の 소채 및 연료에 관한 地理學的考察,” 서울大學校 大學院 碩士 學位論文.
- 韓柱成, 2011, “한국경제지리학의 발전 성과와 미래를 위한 준비,”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4, pp.241-262.
- 加藤和暢, 2005, “經濟地理學小考,” 釧路公立大學紀要 - 社會科學研究 - 17, pp.7-23.
- 宮本憲一·橫田 茂·中村剛治郎 編, 1991, 地域經濟學, 東京: 有斐閣.
- 山本大策, 2012, “地域格差研究の再定立 - 地理的政治經濟派の視點 -,” 經濟地理學年報 58, pp.227-236.
- 矢田俊文, 1982, “産業配置と地域構造・序説 - 經濟地理學の體系化プラン -, ” 經濟地理學年報 28, pp.76-98.
- 矢田俊文·松原 宏 編, 2000, 現代經濟地理學 - その潮流と地域構造論 -, 京都: ミネルヴァ 書房.
- Gibson-Graham, J.K., 2006, *The End of Capitalism(As We Knew It), A Feminist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Peck, K. and Olds, K., 2007, “Report: The Summer institute in economic geography,” *Economic Geography* 83, pp.309-318.
- Rigby, D.L. and Webber, M.J., 1996, *The Golden Age Illusion: Rethinking Postwar Capitalism*, New York: Guilford Press.
- Sheppard, E. and Barnes, T.J., 1990, *The Capitalist Space Economy: Geographical Analysis After Ricardo, Marx and Sraffa*, London: Unwin Hyman.

Seppard, E., 2011a, "Geography, nature, and the question of development," *Dialogues in Human Geography* 1, pp.46-75.

Seppard, E., 2011b, "Geographical political economy,"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11, pp.319-331.

교신: 韓柱成, 138-891, 서울시 송파구 잠실로 62(잠실동, 트리지움[®]) 328-1702(이메일: jshan@chungbuk.ac.kr, 전화: 02-416-0316)

Correspondence: Ju-Seong Han, (III-Zium Apart. Jamsil-dong) 328-1702, 62 Jamsil-ro, Songpa-gu, Seoul city, 138-891 Korea (e-mail: jshan@chungbuk.ac.kr, Tel: 02-416-0316)

최초투고일 2012년 10월 11일

최종접수일 2012년 10월 27일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ol.15, No.4, 2012(457-463)

Systematization for Approach Method of Economic Geography in Korea

Ju-Seong Han*

Abstract : This study examines the epistemological approach of the economic geography and the approach in the ontology of geography which has been studied based on the region, and thereby aims at the systematization of economic geography. Since 1956, Korean economic geography study has been conducted under the development of studies in developed countries without discussing the uniqueness of the study or the systematization of the research approaches. As a result, the systematization is built after the economic geography is divided into neoclassical economy, geographical political economy, regional structure of the national economy, and local autonomous entity economy on a axis of epistemology and ontology for the systematization of approaches. We should pursue the intellectual change adding the major economic phenomena theories such as the world-system perspective, the regulation theory, network theory, and the institutionalism etc. into the systematization of the economic geography.

Key Words : epistemology, ontology, systematization, neoclassical economy, geographical political economy, regional structure of the national economy, local autonomous entity economy

* Emeritus professor, Chungbuk National University